

평양서 18~20일 남북 정상회담 ...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

판문점 선언 성과 점검 ... 한반도 평화정착·공동번영 협의 비핵화 진전 위한 남북간 구체적 협력 방안 등 논의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평양을 방문, 20일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련기사 2면〉

지난 5일 대북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과 북은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간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확고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의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정상화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비핵화 선제조치를 거론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일부

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도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중대리는 강도 3분의 2가 완전히 봉쇄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은 북한의 유일한 (대륙간탄도 미사일개발) 실험장인데 이것은 (실험장 폐쇄는) 향후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의 안전중지를 의미한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종전선언과 관련,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종전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종전선언은 이미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실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관련국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첫 단계로 생각하고 있고, 북한도 우리 판단에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비핵화 해결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다”며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달 하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남북간 정상회담이 열리는지는 않을 것이라고 정 실장은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사절단 단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 광주비엔날레가 6일 프레스 오픈과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전시 개막 전부터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북한미술:사회주의의 패러독스’전이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기자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현대미술 축제 ‘상상된 경계’ 논하다

2018 광주비엔날레 개막 43개국 165작가 66일 대장정

2018 광주비엔날레가 6일 개막식과 프레스 오픈을 갖고 66일간(11월 11일까지)의 일정을 시작했다.

〈관련기사 3면·16면〉

43개국 165명의 작가가 참여해 300여 점을 선보이는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Imagined Borders)’은 11명의 다수 큐레이터들이 협업으로 동시대

경계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전시를 기획했다.

올해 비엔날레는 7개의 주제전과 함께 광주의 역사성을 반영하는 신작 프로젝트 ‘GB커미션’, 해외 유수의 미술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 프로젝트’로 구성됐으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메인 전시관으로 삼고 옛 국공광주병원, 시민회관, 이강미술관 등에서 전시가 열린다.

6일 비엔날레 재단, 아시아문화전당, 국공광주병원에서 열린 프레스오픈에는

미국의 대표 예술자인 아트 포럼(Art Forum) 등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참여,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에 열린 개막식에는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롯해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용섭 광주시장, 랄프 루고프 2019비엔날레 감독, 큐레이터, 참여작가, 시민 등 1500명이 참여해 비엔날레의 개최를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했다.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특별 프로젝트 참여작가가 전시 주제를 재

해석한 미디어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이후 김정숙 여사 등 참가자들은 전시를 관람했다. 정식 개막일인 7일~8일에는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국제 심포지엄과 ‘GB 커미션: 큐레이터 및 작가 토크’가 열릴 예정이며 금남로 분수대 등에서 다채로운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시티미치 모토유키 작품 ‘14세&세계&경계’ 오늘은 3면에 실립니다.

檢, 이명박 징역 20년 구형... “전례 없는 부패”

벌금 150억·추징금 111억 선고공판 10월 5일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외에도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111억 4131만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150일 만이자, 5월 초 첫 재판에 들어간 이래 넉 달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알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쟁을 봐 왔으나 한 사람은 자기 것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는 일은 들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Introducing GLC 350 e 4MATIC

#switchtoEQ

GLC 350 e 4MATIC 출시!
탁월한 퍼포먼스와 놀라운 연비를
동시에 실현한 메르세데스-벤츠의 e-Mobility.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에서 경험하세요!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초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어룡대로 603번길 20 (소촌동)
 수암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임방울대로 520(수암동)

정무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GLC 350 e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2,120kg, 자중: 7.2t), 복합회합유도 연비 (CS연비): 9.7km/ℓ (도심연비: 9.1km/ℓ, 고속도로연비: 10.6km/ℓ),
 복합전기모드 연비 (CD연비): 2.3km/kWh (도심연비: 2.0km/kWh, 고속도로연비: 2.6km/kWh), 복합CO₂ 배출량: 92g/km, 1회 충전 주행거리: 15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를 이미지는 국내 시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